"해양특성화·도립대 통합… 지방대학 한계 극복할 것"

목포대, 글로컬30 간담회 비전 선포

5년간 RISE사업 연계 5500억 지원
'조선해양 연구' 사이언스파크 조성
7개 캠퍼스 문화·창업 거점 전환

"우수한 연구기반으로 지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미래기술 연구와 산업화를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의 성공모델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대학에 5년간 1000억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된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의 포부다.

2일 오전 송 총장은 목포대 남악캠퍼스 다목적강당에서 '글로컬대학 선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세부 추진 계획과 비전을 발표했다.

송 총장은 '글로벌 해양특성화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최고의 해양특성화 명문대학 △전남의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거점 국립대 △학생복지, 청년 문화예술과 창업의 중심대학이라는 전략을 선포했다.

우선 목포대는 이미 조성된 두 개의 산학융합지구를 미래기술 연구 및 교육, 양질의 취업-창업 기능을 갖추고 글로벌 연구자가 정주할 수 있는 '글로벌 사이언스파크'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국 제2의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영암 대불국가산단에 위치한 대불산학융합지구는 SMR,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선박을 연구하는 '글로벌 오션 사이언스 파크'로 조성된다. 한전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나주혁신도시의 에너지벨리 산학융합지구는 해상풍력과 에너지-ICT를 담당하는 '에너지 사이언스파크'가 될 예정이다.

송 총장은 "글로벌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서남권 친환경 무탄소 선박 산업 3조원, 해상풍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에너지산업에 4조원의 매출 증대와 총 1만명 이상 지역의 고용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대는 전남도립대학교와의 통합을 통해 전남 최대의 국립대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립대의 통합은 2년제 학위과정을 유지하며 추진되는데, 이로써 2·4년 학위부터 석박사 학위과정을 모두 갖추는 최초의 국립대가 된다는 계획이다. 전문학사-학사 연계로 일-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남도립대 담양캠퍼스와 장흥캠퍼스가 대학과 지역의 협력사업 거점으로 활용하게 되는 부수적인 대학통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철 총장이 2일 목포대 남악캠퍼스 다목적강당에서 '글로컬대학 선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세부 추진 계획과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송 총장은 "지역 사립대와 고등학교의 특성화 지원, 순천대와 목포해양대 같은 지역 국립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전남도 고등교육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통합대학 6개 시군에 입지한 7개 캠퍼스를 학생복지, 청년 문화예술과 창업의 거점 캠퍼스로 바꿔 '청년이 남아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무안의 목포대 본교는 대학촌 리모델링과 테마거리 조성 등으로 학생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목포캠퍼스에 의과대학과 대학 병원 유치를 추진하며, 도청이 들어선 남악신도시 캠퍼스는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립대 본교인 담양캠퍼스는 글로벌 인재양성캠퍼스로 발전시키고, 장흥캠퍼스는 바이오식품 클러스터로 육성할 예정이다.

송 총장은 "신안군은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강진군에 위치한 구 성화대 캠퍼스에 청년 창업과 정주를 위한 스타트업 벤처 타운 조성 등 6개 추가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목포대는 글로컬사업에서 향후 5년간 국비 1000억원, 지방비 1854억원, 국비 및 교비 1200억원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연계사업인 RISE사업 1000억원, 국립대 육성사업 500억원 등을 포함하면 2028년까지 총 5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목포대는 글로벌 사이언스파크 조성 등 글로벌 혁신에 1500억원, 대학 특성화 및 학생 복지, 문화예술·첨단 교육환경 조성에 1500억원, 지역협력사업에 2000억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송 총장은 "희망하는 전 학생들에 대해 글로벌 해외연수를 보내는 등 학생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강주비 기자

"세상을 바꾸자"… 907기후정의행진 참여 독려

광주·전남 시민단체 참가 선포
7일 서울 강남대로 일대서 진행
단체·2만여명 시민 참여 예정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가 오는 7일 서울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 참가를 선포하고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광주·전남 환경·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907기후정의행진 광주조직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907기후정의행진 광주지역 참가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단체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올 여름 관측 이래 가장 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다"며 "매해 심각해지는 이상기후는 기후위기가 직면한 문제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대 에어컨 설치 노동자의 죽음은 우리를 슬픔을 넘어 분노하게 했다"며 "이상기후에 불안과 절망을 느낀 이들은 농민들이고 다양한 현장의 노동자들이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겉으로는 탄소 중립과 ESG를 말하면서, 온갖 기후 악당 사업을 추진해 이윤을 챙기는 자본에 기후 위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난과 민생에는 눈감고 자본의 이익과 손잡는 정치권력에 맞서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907기후정의행진 광주조직위원회는 전국 각지서 모인 기후위기 당사자들과 함께 힘찬 행진을 만들 것"이라며 "개인의 힘찬 목소리를 연결해 더 큰 연대와 희망을 만들 것이다. 이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거리에서 만나 힘찬 걸음을 함께하자"고 독려했다.

907기후정의행진 광주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2일 광주시청 앞에서 907 기후정의행진 광주지역 참가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 위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한편 오는 7일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907기후정의행진'은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운동단체와 2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80여명이 상경버스에 오를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